

#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Dong Un Kang, Publisher

M. W. Moon,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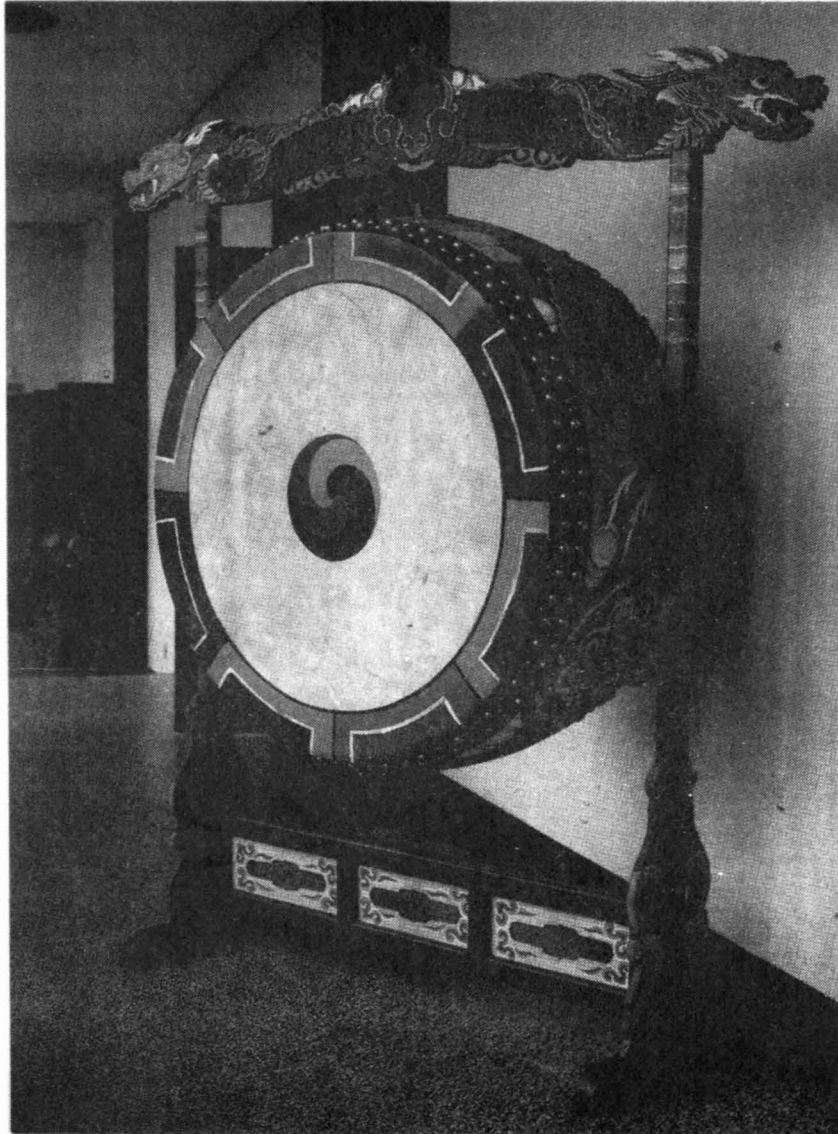
Phone: (206) 767-7934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10, No. 1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981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

(206) 767-7934



EAST-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IATA-ATC 공인

#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 —영업안내—

- \* 국내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중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택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영호

# 인사말씀

" 친애하는 씨애틀 와싱턴주 고민여러분 "

198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외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고민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81년도의 한인회에  
봉사하게된 감동 언입니다. 과 가정마다 찾아가 뵈옵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이 지면을 통하여 신년 새해를 드립니다.

"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일에 행운 하시길것을 빠킷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 하시어 아끼없는 지도와 편답을 하여  
주심것을 빠킷습니다.

## 존경하는 고민여러분!

1980년 12월 31일 자정야 인사의 말씀을 적는 과정에서 1981년 1월 1일 영시 1초가  
되는 관계무량한 순간을 맞이 하였읍니다. 거기에서는 축복의 불꽃이 만발하고 비비  
에서는 축하와 희망의 환호가 울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본인은 더 한층 감회로운 심  
정으로 차분히 다시 한번더 회망찬 81년도에는 우리고민 사회의 발전과 여러분외 권의  
신장을 위하여 충실하게 봉사 할것을 다짐하였읍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한인회 임직원  
과 여러분외 임선하여주신 이사진이 임치 단결하여 충실하게 정열을 쏟아 입 하겠읍니다.

지도적인 차원에서 상담하여 주신 고문 여러분과 항상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과 충고로  
서 도와주실 자문위원이신 여려선박님을 모시고 한해의 많은 임기를 활기차게 전진 하  
겠읍니다. 우리 고민사회 임과에 당부 드리고저 하는것은 까닭 없이 남을 비방하고 불  
신하고 시기하는 버릇과 우리고민사회의 존재가치나 발전과정애 대하여 매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행위를 버리고 보다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서 우리사  
회 발전을 위한 사업애 앞장서 주심것을 당부 하는 바입니다. 언젠나 우리고민사회 밖  
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기관과 이곳 애 주재하시는 종업사를 비롯한 관원 여러분 그  
리고 본국 무역상사 건진 기지의 대표 여러분께 기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씨애틀 와  
싱턴주 전 고민 여러분외 건승과 더불어 행운을 빠킷습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1월 1일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강      동      언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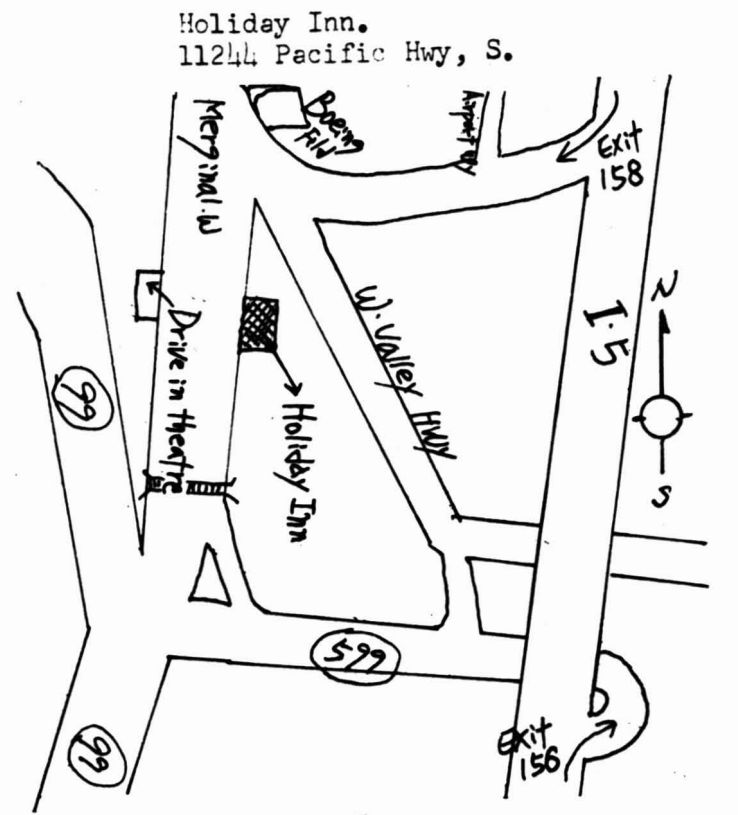
# 고민께 알립니다.

## "조찬기도회"

1981년도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자 하오니 그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월14일 (토요일) 오전 8시  
 장소: Holiday Inn. (약도참조)  
 행사계획: 기도회, 조찬회,  
 상세한 문의사항과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2월12일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를 한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인회 사무실 767-7934 주간  
 367-4687 야간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장 강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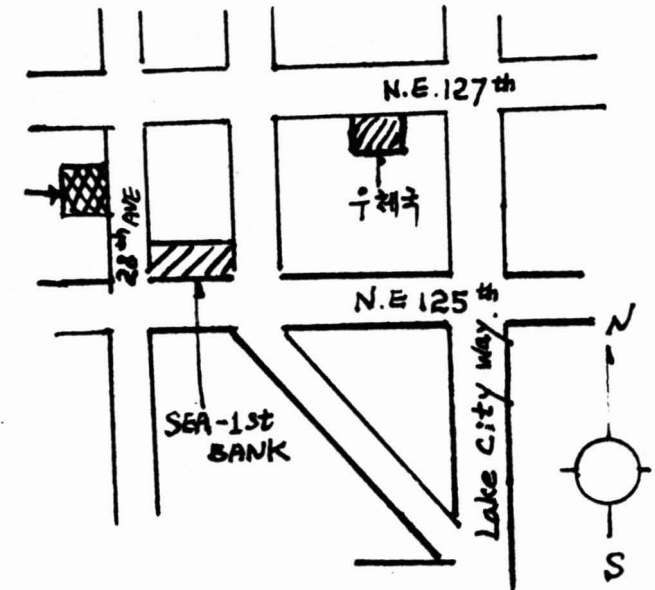
## "3.1 절 행사"

올해로써 62 주년을 맞는 3.1 절 기념 행사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그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Lake City Community Center (약도참조)  
 기념식이 끝난후 고민 여러분을 위한 위안의 극 영화를 상영합니다.

제목: 여고 졸업반

Lake City Community Center  
 12531 28th Ave. N.E.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장 강동연

# · 신년사 ·

새해에도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금년 한해의 설계만니 아니라 10년 내지 20년의 긴 앞날에 대한 설계도 새우셨으리라 믿고 이 모든 설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언하기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안정을 이룩하여 새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람찬 새역사의 창조야말로 국내외의 모든 동포가 우리민족의 긍지를 갖고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빨리 이루어질수 있다고 믿읍니다.

이곳에 정착하시러 오시는 우리동포의 수효는 날날이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언어의 장벽, 생활관습, 문화전통의 차이등 많은 어려움을 희망과 용기로 극복하시고 상부상조의 우리민족의 미풍을 발휘하시어 뛰어난 자질과 근면성으로 한민족의 우수성을 떨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하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췌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동포애로 더욱 굳게 뭉치고 힘을 모아 이곳 한

인사회를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킬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대신합니다.

1981년 1월

주 시애틀 총영사  
 장운걸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고포어터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금년에 더욱 앞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인고포 여러분 새해가 밝듯이 만물이 소생한다는 새봄의 오고 있습니다. 한인회, 한인회, 예년에도 올해도 변함없이 조그마한 살림 제자리 걸음만 하고있는 우리들의 모임인것 같지만 마치 건강한 어린아이가 이세상에 나오기 전까지엔 모체속에서 잉태하여 일정한 성장과정을 밟아야 하듯이 우리한인회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해마다 발전하여 왔읍니다.

1967년도 고민의 수가 불과 몇백명으로 첫한인회가 창립된이때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성원속에서 발전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었어서는 안될 힘의 단체로 명실공히 3만여명의 우리 씨애틀-와싱턴주 한인들을 대변하는 회로 성장하여 왔읍니다.

이렇게 선배 제현님들께서 두고 키워온 이 회의에 본인에게 중책을 맡기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민여러분 새날과 함께 새 일꾼에 대한 기대를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운 일꾼들이 올해에는 보다 나은 한인회, 우리들이 이민생활에 필요한 한인회, 그리고 후세들을 위하여 준비할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마치 산에는 한가지 나무만 자라지 아니하고 들에 한가지 꽃만 피지 아니합니다. 여력가지 수목이 조화되어 운치와 장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개개인 그리고 가정 단위로 다 모두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일하여야만이 더욱 우리들의 한인회가 발전될 것이며 잘 조화를 이루는 훌륭한 한인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친애하는 씨애틀-와싱턴주 한인 고포 여러분 우리다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일 하 시기를 부락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신원 합니다.

1981년 1월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김정부

1981년도 한인회 회장단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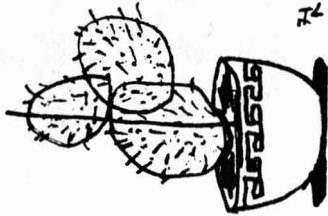
- 회장 : 강동연  
부회장 : 최봉기, 박홍순  
총무 : 신병권    재무 : 김용세  
봉사 : 임필수    홍보 : 양갑영  
정년 : 김영상    교육 : 김영봉  
편집 : 문무용    부녀 :  
체육 :

1981년도 한인회 이사진

- 이사장 : 김정부  
부이사장 : 김현길  
이 사 : 임명보, 김무영,  
서광선, 이기락,  
정철식,

中国의 "주희" 말:

「하루기의 노여움은  
있어서 안되지만  
정 의와 노여움은  
있어서 안되려나」



김이 24-81 Lim

희망찬 새해 81년을 맞아 본인이 기능 사협회장이라는 중한 책임을 지고 한인회 보를 통해 여러분 가정애 인사를 드립니다. 협회가 발족한지 어느덧 8년 그간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 이제는 어느정도 체계를 갖춘 하나의 단체로 성장하고있으며 더우기 LOCKHEED 에서 많은수의 기능공을 필요로 할것이라는 밝은 소식과 함께 각 지역애 고민들이 이곳 씨애틀로 모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때 입수록 우리서로서 봉사와 협조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회장 당선과 함께 본인이 노력하고자 하는일은 쉬운것에서 어려운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곳으로 한가지씩 힘껏 일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몇일후면 새로 선출된 이 사진과 임원이 모여 한해의 설계를 꾸미고 그 계획과 입정에 따라 모든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고포여러분의 협조로 많이 본 협회가 발전될것으로 압니다.

1981년 1월

씨애틀-와싱턴주 기능사협회

회장 고광운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TEL: 367-1534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325-5032 RES: 367-1534

고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가정에 만복이 내리는 해가 되고 고달픈 이민생활 전체에도 축복이 깃드는 해가되시기를 소축합니다.  
80년의 성탄과 81년의 새해를 당하여 보내는  
는 아쉬움과 맞이하는 희망에 비찬 마음  
으로 새이집을 맞이한 저의 해병동 지휘는  
동지들의 부지와 고민여러분의 한결같은  
협조애 힘입어 대과없이 한해가 저물었  
습니다. 우리조국 안팎으로 오늘의 국면을  
살피보아도 확기애찬 활력과 새로운 시대  
의 정신양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밝

은 내일을 지향하는 우리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속에서 부작용으로 파생될수 밖에 없었던 각종모순, 갈등, 불균형 특히 과자 수입면에서의 격차, 상호불신, 인간상실, 정신적 공해 등 그동안 우리들이 감내해야했던 커다란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 할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저할것도 없습니다. 고뇌속에서도 성숙이있고 위기속에 기회가있고 혼동속에서도 오히려 선상이있고 심지어 종말론 속에서도 희망의 신화가 있지않습니까? 저자신은 무신론자에 속합니다만은 오직하나 역사의 신만은 굳게 믿습니다. 저의 해병동지회는 새해의 실천사업으로 율령실습을 국민을 위한 생계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저 그 시설을 갖추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구시대적 유민장병으로 말라함이 없이 이고장의 한인사회 발전에 새역사 창조와 선구자로서 자신있게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대신 합니다.

1981년 1월

와싱톤주 해병동지회  
회장 김두영

## 한인회 소식

### ○ "이사회 소식"

1월 24일 오후 5시에 이사장대(김정부)에서 81년도 첫 이사회 모임이 있었으며 다음과같은 내용의 결의및 토의가있었음.

- 1) 1981년도 사업계획의 건
- 2) 한인회 사무실 이전에관한 건
- 3) 2월 14일 조찬 기도회에 관한 건
- 4) 3.1 절 기념식에 대한 건
- 5) 한인회 유인물 발간에 관한 인쇄기 구입에 따른 토의

### ○ "고역자 친목 만찬회"

1월 27일 다운타운에있는 레스토랑(구 연경)에서 총영사관 주체로 고역자 친목 만찬회에 한인회 회장이 참석 한인회와 각 교회간에서도 협조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조찬기도회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았음.

### ○ "와싱톤주와 오리건주 상사지사 대표자 간담회"

1월 30일 낮 12:00시에 다운타운에있는 구 "연경"에서 총영사관 직원 및 무역관장과 상사지사 대표자 간담회에 한인회 회장(강동연)이 참석 많은 의견 교환과 서로의 협조를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음.

### ○ 1980년 한인사회를 돌이켜 보면서..

#### 엄명보(80년도 이사장)

존경하는 2만여 씨애틀 지역 교포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귀동과 다사다난했던 80년대의 첫해도 이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땅에서 전통문화 민족의 긍지를 가지시고 오로지 자신과 가정의 위하여 또 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고초와 시련을 기어이 이겨내시어 그 보람으로 과자 생활안정 이룩하시는데 대한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 동료이사님들과 더불어 아낌없이 존경심과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리랑의 밤"을 맞이하여 이처럼 온통환희와 반기움으로 넘치는 즐거운 자리에서 임하는 저의 마음은 비록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 이사장으로써 교포 여러분에게 미처 다해드리지 못한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으로 어둡게 그늘져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능동적 주체가어야 할 우리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 한인회 한때나마 수동적 객체로 보였던 일들을 돌이켜 볼때,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기 한이 없음을 또한 실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살아야 할 교포 여러분!

지금 이 즐거운 자리에서 지난날에 있었던 시소한 결함들을 낱낱히 들추어 내어 되씹

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움추리는 엄동이 깊어지면 활개치는 확춘이 멀지않아 밝아올 내일의 발전을 갖어 올 진행과정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릇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는 건전한 봉사정신이 건재해 있어야하며 그 어느누구도 함부로 헐뜯을수없고 침해나 이용할수도 없는 으젓한 품위와 활력을 굳건히 견지하고 영원히 변치않는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을 지키면서 내일을 향해 발돋움 할때 그는 진실로 미국사회에서나 교포사회에서 무한한 신뢰와 협조를 받을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보다 희망에 가득찬 교포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에 여러가지로 마구 몰아닥친 실고종고 올고 큰 온갖변화들 혼미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변화와 혼미는 불안과 좌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체적 능력이있는 자에게는 도리어 발전과 창조요람이기도 합니다. 도전과 위기는 공격과 위협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능동적 용기있는 자에게는 도리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획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모두 백전의 노력과 분발을 아낌없이 기울여서 보다 보람있는 해가되도록 합시다. 현대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변지는 현실이되고는 하겠습니다. 정신적 디플리케이션과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파생될수밖에 없었던 각종의 모순 갈등 불균형 특히 상호 불신 인간상실 정신적 육체적 공해 편중

등은 그동안 우리들이 감내해야 했던 커다란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력이나 조직내의 지위가 걸린일에 있어서는 비리, 불법, 배신도 미다 않는 변칙이 더 통하는 사회 역권의 소산 기획주의 이기심리로 발전하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 데는 수 많은 고통과 인간의 손정과 의리가 짓 밟히고 맹신과 광신 불신이 난무하는 비애와 정신적 고통을 무수히 겪은 후에야 진정한 환희도 영광도 찾아오리라 믿읍니다. 또 손뎌만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열풍도 몰아치고 돌풍도 휩쓸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고포 여러분 고뇌속에 성숙이 있고 위기에 기회가 있고 혼돈속에 오히려 선생이 되고 심지어 종말론 속에서도 희망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착잡해 옛 갈리는 속에서도 결국 인류역사의 진행과정은 인간자유와 광대 민주제도의 확립과 인민복지의 실현 방향으로 한발한발 접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겠읍니다. 개인이 있어서나 민족이 있어서나 세계인류가 있어서 역사창조에는 본말은 있어도 체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활기는 있어도 권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발은 있어도 종착은 있어선 안 되겠읍니다. 또 그역사 창조에는 가능성은 있어도 기적은 있을수 없습니다. 기획와 가능성은 있어도 요행과 반복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과 후세들을 위해서 오직 철저한 팔기의 세전진만이 있을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조국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룩한 그 실력과 그 성취의 후광으로 저절로 무한히 발전할것입니다. 닥아오는 세해에는 우리모두 지칠줄 모르는 준마처럼 우리들 자신과 씨익을-와 심혼주 지역 한인 사회의 발전 그리고 우

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향해 굳게 손잡고 신뢰와 친화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험란한 인생항로에 내내 역풍을 이겨내는 손뎌가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 —\$ 재정소식 \$—

### ● " 81년도 회비 납부자 "

( 1월달 무순 )

- |                |                 |                 |
|----------------|-----------------|-----------------|
| 1. 이 동 립 \$ 30 | 9. 박 홍 순 \$ 20  | 17. 김 정부 \$ 20  |
| 2. 이 선 희 \$ 20 | 10. 신 병 군 \$ 20 | 18. 김 현 길 \$ 20 |
| 3. 김 성 길 \$ 20 | 11. 김 영 상 \$ 20 | 19. 김 무 영 \$ 20 |
| 4. 김 재 근 \$ 20 | 12. 문 무 용 \$ 20 | 20. 엄 명 보 \$ 20 |
| 5. 정 운 제 \$ 15 | 13. 임 필 수 \$ 20 | 21. 이 기 락 \$ 20 |
| 6. 김 동 보 \$ 15 | 14. 양 갑 영 \$ 20 | 22. 서 광 선 \$ 20 |
| 7. 강 동 언 \$ 20 | 15. 정 단 \$ 20   | 23. 정 철 식 \$ 20 |
| 8. 최 봉 기 \$ 20 | 16. 김 용 석 \$ 20 |                 |

" 한인회 발전을 위해 회비를 납부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인회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한인회비는 1년에 1회이며 개인당 \$ 10 이고 가족은 \$ 15 입니다.
2. 회보를 원하시는 분이나 새로 이민오신분, 타주에서 오신분, 주소를 변경하신분은 꼭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화 : 767-7934

고포 여러분의 협조를 직삼 부탁드립니다 81년도엔 여러분들의 꿈이 모두 소원 성취 하시길 빌겠습니다.

" 내가낸 한인회비 발전하는 한인사회 "



\*여행의 상담자\*

## 김의이행사





Canadian Pacific

### 모국방문 특별할인

귀국선물안내    **공증 업무 취급**

### 대표 김창성

BUS: (206) 624-2227/624-2228

RES: (206) 364-9934



Advance Properties

REALTOR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 Kim's Travel Service

ROOM 619 -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 김철준

# NEW YORK LIFE

# 보험



SEATTLE 사무실 : 546-6586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 10월 29일-10월 31일 까지 ( 총회시 납부자 제외 )

#### 하인회비

286. 지장한 \$ 15:00	287. 신석훈 \$ 15:00	288. 장원서 \$ 15:00
289. 남성삼 \$ 15:00	290. 박홍순 \$ 15:00	291. 최봉기 \$ 15:00
292. 서광선 \$ 15:00	293. 이기탁 \$ 15:00	294. 조기두 \$ 20:00
295. 조영 \$ 20:00	296. 이순모 \$ 15:00	297. 오수당 \$ 20:00
298. 최경옥 \$ 10:00	299. 정택수 \$ 15:00	300. 김용석 \$ 15:00
301. 장낙중 \$ 15:00	302. 이창옥 \$ 15:00	303. 영화량 \$ 15:00
304. 김중진 \$ 15:00	305. 박성수 \$ 15:00	306. 김문환 \$ 15:00
307. 곽종세 \$ 20:00	308. 문재만 \$ 15:00	309. 주봉덕 \$ 15:00
310. 이기문 \$ 15:00	311. 황의택 \$ 15:00	312. 김종구 \$ 20:00
313. 이성구 \$ 20:00	314. 조희환 \$ 15:00	

합 계 : \$ 460:00

#### 특별기금

이동립 \$ 300:00 ( 음악회 )
조병규 \$ 100:00 ( 음악회 )
장해리 \$ 100:00 ( 음악회 )
한인회 \$ 100:00 ( 음악회 )

이영재 \$ 100:00 ( 음악회 )
김길량 \$ 100:00 ( 음악회 )
편신 \$ 200:00 ( 음악회 )

합 계 : \$ 1,000:00

#### 건축기금

44. 주봉덕 \$ 50:00

합 계 : \$ 50:00

#### 년말결산서 특별기금 창조자

김길량 (프로티보 대표) \$ 720:00
노순업 (80년도 한인회부회장) \$ 500:00
총영사관 \$ 450:00
정찬근 (아리랑바베포장) \$ 50:00
홍인표 (정신신경과 의사) \$ 50:00

#### 아리랑밤 창조자

#### 현금 창조 해주신분

정철식 (80년도 한인회장) \$ 588:00	홍석기 (한국여행사대표) \$ 100:00
총영사관 \$ 500:00	이종배 \$ 100:00
김종구 회계사 \$ 50:00	정경화 \$ 150:00
조병규 치과 \$ 100:00	곽상영 (영화량 대표) \$ 100:00
김스모터 리퍼어 \$ 100:00	고봉식 \$ 50:00
박창식 내과 \$ 30:00	김철준 (김철준보험) \$ 70:00
권성호 \$ 30:00	고광운 (기능사협회장) \$ 50:00
김기영 \$ 500:00	장부관 (80년한인홍보부장) \$ 50:00
정낙영 \$ 20:00	허영 \$ 20:00
조기두 \$ 20:00	김두영 (계명동기회회장) \$ 47:00
무명씨 \$ 46:00	

합 계 : \$ 2,871:00

● 상품 기증 해주신분

김철준(김철준보험) 고급벽시계1점, 윤학덕(윤학덕백권도장) 쌀50파운드1포  
 장경화(아리랑 박) 고급손목시계1점, 광상영(영화탕) 고급그림 1점  
 이학유(세계피아노사) 키바 1점, 이종완(중앙일보사)3월간무료구독 5인분  
 박유철(팜스인수렌스)전기타리미1점, 황수철(황수철부동산) 쌀25파운드2포  
 서유성(엑스피엑스) 대형그림 1점, 조병우(한국일보)6개월간구독권 1인분  
 장원서(킹스즐리) 고급목걸이 2점, 고미화(한국식품) 청수냉면, 라면 각2박스

● "재무후기"

80년도 일년동안 재무를 맡아온 자로서  
 결산 업무에 우선 많은축자 #1514.74)를  
 인계 하지 못함에 활동 부진사유로 미루  
 어 사과드립니다. 한인회운영이 과연  
 얼마나 고난이 크다는점을 직접느껴 본자  
 로써 지면에 전부 실을수 없는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고생의 댓가는 비난으로 끝나  
 는 것이 봉사활동 자의 보람인 가 하는  
 반문을 고민여러분께 남기고싶고 반면  
 한인 발전에 건전한직, 간접적 충고와  
 재정협조등 과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역대 한인회  
 에서 쌓아놓은 한인단체를 유지하면서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한글학교  
 에 꼭 필요로 했던 피아노 1대 ( 김 김  
 랑씨 기증품 ) 그리고 사무실에 남은  
 마자기로 고생이 많았는데 총영사관에서서

이점을 아시고 고급한글타자기 1대를 기  
 증해 주신것과 그외 간단한 사무  
 실 도구등 ..... 발전에 도상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고  
 한인회 힘이 커지는것은 오직 우리모두  
 협조 하는 김임을 실제임을 해본자로증명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자로서 끝  
 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구구한  
 설명은 생략하옵고 꼭 우리 한인회가 있  
 어야하겠고 한인회를 번영키위해선 우리  
 전고민의 자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  
 다. 다가온 새해 81년도에도 많은참  
 여와 한인단체를 위해 조언 많으시길 바  
 라오며 우리다같이 합심하여 시야를-와  
 심혼주 한인회를 빛내어 봅시다.

1981년 12월 31일

재무 부장 이 광술

● 공 지 사 항 ●

○ "서울대학교 교수요원 공개채용"  
 서울 대학교에서는 2월15일까지 교수요원  
 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분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인회 사무실 ( 767-7934 )

○ "81년도 국비 유학생 모집"  
 문교부로부터 접수된 제 5 차 IBRD 교육  
 차관사업에 의한 81년도 경영학 분야 국비  
 유학생 후보자를 선발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연락처 한인회사무실 ( 767-7934 )

"너 하나와 참여로 뭉쳐 지는 한인사회"

노순열 부동산

부동산 거래의 생애는 AGENT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QUITY EXCHANGE



주최. 상가. 아파트. 매매  
 용지알선. 주택거래 강행.  
 주정부인가 GENERAL CONTRACTOR  
 (건축허가. 신.중축공사 시공)

전화: (206) 771-1979 (사무실)  
 542-7977 (집)

# 산부인과 전문의 로 명재 M.D. (ROE, MYONG J.)

Diplomate,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 Gynecology

Fellow,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 일반산부인과 · 불임증 전문

\* 임신중절은 하지 않습니다.

월. 화. 금. 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833 ~ 2580>

Appointment에  
의해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9.30 A.M.  
5.30 P.M.

수. 일. 토. 요. 일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927-8440>

## 국민의 동향

### ○ 심상연씨 복키퍼 사무실이전

심상연씨는 최근 부동산상세업스맨 자격증을 획득 마코마 텍이크 우드 리얼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인컴택스 사무실을 10307 BRIDGEPORT WAYS.W로 이전했다.  
전화 582-1644. 474-1802

### ○ 이영주 치과 마코마지역에 본원 개원

씨애틀에 있는 Stevens Dental Center이어서 1월 24일 마코마에 본원을 개업하였다.  
주소: 20728 - 76th Ave.W. Edmonds,  
전화: 775 - 3456

### ○ 그랜드식품점에서는 2월 말경에 씨애틀을 최초 한국 서적점마를 개설할 예정임

서적내용 : 기독교서적, 사전, 신간서적, 교양서적, 어린이 문고, 등

“오늘 하루 이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이 시간을 확실히 행위  
로써 장식하라.”  
루즈벨트 말

## ○ 국민의 숨은 잠재력을 기대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국민이 어려움속에 존재하는 동안 숏한 사연을 간직한채 "불행은 행복에 전주곡"이란 명언을 암기하며 살아야 하는 가운데 늘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이 어려운 제입장 이거늘 한인단체에 심부름꾼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보람을 얻고져 합니다.

허기에 어느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미숙한 제가 이렇게 한인회보를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런 나머지 부락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의도 또한 「전회 위복」이란 단어를 새삼더욱 의식하며 국민간에 소홀했던 공백기간을 보다 진지한 대화와 화합에 치중하고 나아가선 국민성을 과시할수 있는 계기가 가까운 우리주변에서부터 정립되었으면하는 소원이거늘 계속해서서서 조언과 많은 제보를 받아마지않겠습니다. 가식없이 참되고 적극적인사고방식을 지닌 마음가짐 (정신자세) 속에 협동과 사랑을 지닌 국민성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개인은 명랑하고 진정 알차게 성장되리라 믿어또한 확신해봅니다.

1-10-81

황 임 필 수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 MIDWAY UNION

###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왈릿  
전너런

#### \*\* 자동차 정비 일체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TIRES \*\* BATTERIES

\*\*도요다 닌자 혼다등 외국차 전문

• 2월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여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실,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환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 와싱턴주 구역지 친목회 총회

와싱턴주 한인교회 구역지 친목회 정기 총회가 지난 7월20일 ( 화 ) 오후 6 시 에 타코마에있는 시온한인장로교회 ( 성운경목사 시무 ) 에서 열렸다.

1부 예배순서로 김동진 목사 ( 타코마한인루터교회 시무 ) 의 설교와 김종원목사 ( 씨애틀 한인연합감리교회 시무 ) 의 기도 그리고 성운경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전회록 낭독과 회계보고를 받은 다음 임원선거에 들어가 회장에는 김종원목사 부회장에는 김명수목사 ( 타코마한인장로교회 ) 총무에는 성운경목사가 선출되었다. 부활예배 등 81년도 사업계획은 신임회장단에 입입하고 폐회하였다.

● "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 강 선 희, 1952년 7월 5일 생  
본적 : 제주도 제주시 상도 2 동  
딸 이름 : CRissy Ann Nordwell.

생일 : 1976 년 4 월 18일

강 선 희 씨 남편 되시는 ( JOHN NORD-

WELL ) 분은 미국군인으로 74년부터 76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으며 75년2월에 결혼했고 76년4월에 한국을 떠난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강선희씨나 그의딸의 소식을 아시는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을 바랍니다

성명 : JOHN NORDWELL

주소 : 1516 1/2 5th AVE # 213.  
SEATTLE WA 98104

치과 전문의  
조 병 규

주소 : 215 N. 125th ST  
Seattle, WA 98133

전화 : OFF 367-5570  
RES 716-8512

가옥, 상점, 사무실, 수리전문

저렴한비용으로  
책임봉사!



- 울타리 및 지붕 개량
- 캐비닛 일절
- 내부수리
- 구조 변경

윤 목 수

☎ 363-5492

\*목수경력 19년 10개월

감성 과 이성  
글 이 형 상

적 유명한 고대희랍의 대철인 " 소크라테스 " 는 "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 라고 했었다. 늘진 벌판, 매미 큰 산비탈에서, 거친 자연환경에서도 버티다가 찬 서리, 눈비에 거쳐 쓰러지는 생활이 " 갈대 " 라면 우리 인생도 같은 험난의 길을 걸음이 다름 바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생각할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바쁜 생활과 주위로부러 의식달림이 많지만 우리 모두 이 시점에

서 잠시나마 이 생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생각하지 않는 갈대 " 가 먹고, 입고, 살아간다면 이는 곧 야생의 갈대가 분명하며 동물에도 못 미치는 한갓 푸초라는 말이된다. " 약육강식 " 가만히 자연의 본연을 숨기고 눈에 불을켜 매만 기다렸다가 자기보다 힘약한 동물이 나타나면 톱새 잡아뜯고 배를 채우는 짐승 그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찬 이슬에 눈서리에 쇠잔 시들여 가는 식물일지라도 다시 봄기운이 나들면 새싹을 피우는 게 갈대다. 우리는 진실로 " 생각하는 갈대 " 가 되어 마스한 인정의 동포애의

제일 한방원

인삼, 녹용, 웅담, 사향, 보약재  
각종 한약품 일체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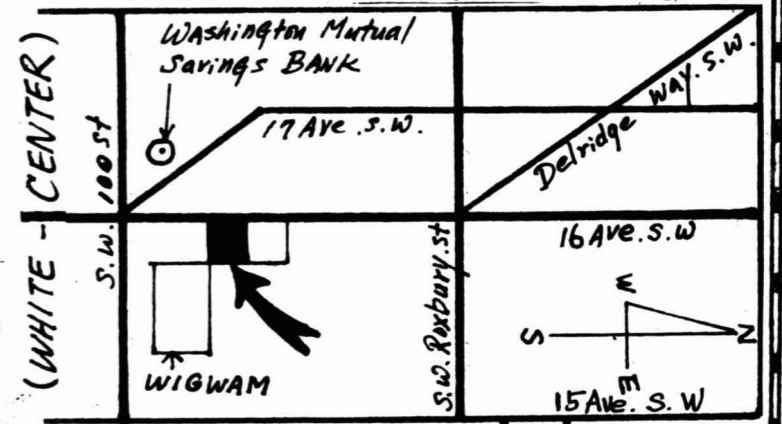
전화 : BUS : 762 ~ 9695  
RES : 767 - 4977, 763 - 2780  
주소 : 9832 16th S.W. SEATTLE, WA 98106

• 품질 좋은 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함

• 동양 의학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무료 상담자 소개함  
( 무료진맥 )

• 영업시간 : 평일 ( 10시 ~ 6시 )  
토요일 ( 9시 ~ 12시 )

< 약도 > 대표 : 조 종 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야겠다.

### " 감성의 동물 "

역시, 감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비록 미미한 한 마리 짐승일지라도 남이 괴롭히고 해를 가해오면 그냥 있진 않는다.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하물며, 고등동물인 인간 입에라. 자기 사육의 충당을 위해 남

을 괴롭히고 해치고, 짓밟으려는 자를

가만히 앉아서 피해당한다면 이는 산 사람이 아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어쩌든, 내가, 당신이 그냥

보고 있지 못함은 감정을 지닌 동물 즉 인간이란 산 증거다. 하도못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돌아 앉아서 빈 주먹으로 허공을 친다든지, 상소리 한번 지르고,

침을 내뱉는 것도 내가, 당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리는 예로

부터 의를 좋아했고 의를 위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고있다. 불의가 의를 짓

밟고 횡포를 부림을 보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느끼지 못하는 내 동포가 한사람

이러도 있을까? 당신이나 나나 모두 감성의 동물이기에, 감성의 동물이었던

당신의 조상들로부터 피를 받고 현존의 가치, 필요성을 지닌 인간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고귀한 감정을 잘 살려 생활하는 동물이 되

어야겠다. 주위변천에 좀더 민감한 감정, 사리 판단에 보다 올바른 감정, 적

절한 행동 계획에 감정 생활을 해야겠다. 흥분할 때는 흥분하고, 분개할 때는 분개

하는 감정, 애도할 때는 애도할 줄 아는 감정의 생활을 해야겠다.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힘을 보여주는 변화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

### " 이성의 동물 "

생각하는 갈대, 감정의 동물인 인간의 참 인간됨은 역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말해, 더 깊이 더 많이 더 오래 생각하는 능력을 보유했습니

다. 어떤 불시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 발동하여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수가있다. 강자가 뒤에서 뒤에서 앞에서 증용 사주한다고 해서 약 자가 면전에서

살살 거린다고 해서 사리판단도 못하고 남의 이름을 도용, 나의 이익만 생각코 헛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성이 없다는 증거다. 우자를 꺾고 약자를 달래 모아서 그위에,

그안에서 군림하며 헛세를 부리는 인기 있는 소군자가 되려함도 역시 이성이 없는

못쓸 짓의 행위인 것이다. 이성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차분히

생각하여 바른 길을 알리는 따뜻한 영구불변의 태양과 같은 것이며, 해를 담함에도

즉각 흥분, 보복 않고 시간을 갖고 냉

정히 비판하는 평화, 인도애의 끈질긴 안 내자인 것이다. 알카 치솟는 뜨거운 감정을,

아픔을 달래주고, 식혀주는 구수한 보약인 것이다.

그저, 다혈질, 철 얻는 망난이처럼 말만 떠벌리고 쓰지 못할 주먹을 그릇 내두르는

소위 전근대적 무아 맹들의 " 동키호테 " 는 이성이 약간 모자라는 팔푼이, 아니,

우리들 어렸을 적 소학교에서 귀에 못박히게 들어왔던 꼭두각시인 것이다.

항상 좀더 깊이 생각하고 무게있게 행동하자 하여 만물의 영장으로서 문화를 가진

것이다. 우리는 고등동물, 이성의 동물인 것이다.

항상 좀더 깊이 생각하고 무게있게 행동하자. 이성을 살려서 내 직장에 충실하

고, 내 기정에 최선을 다하며 내 동포에 헌신하자. 나는 만인애의 평화, 행복과 중

생구제의 이성 있는 목자가 되고 목탁이 되어야한다. 나는 " 사회의 거울 " " 사

회의 공기 " " 역사의 산 기록 " 을 제작함에 긍정적인, 비판 받지 않는 사명감에

입해야 할 것이다. 혹시 인간의 사회이기에 실수를 범했다손치더라도 깨끗이 뉘우

치고 새길로 걷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실수 아닌 고의의 잘못도 뉘우친다면 이

성을 지닌 우리동포들은 아량을 베풀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거만과 헛세,

자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K-Auto Repair

\* Tune-up Special

4기통 \$30    6기통 \$32    8기통 \$35

위에 가격은 부속을 제외한 가격임.  
일제차는 Valve 조정 해드립니다

<전문 취급>

튜닝 밸브잡 트랜스미션(수동) 브레이크 전기장치 세어콘 히터

BUS : **762-5844** (소방서앞)

RES 767-9245

영업 월~토 8~6:00 PM

1513. SW Holden St.

Seattle, WA 98106



이제, 기름투성이가 되고 페인트로 얼룩진 야기한 손, 바늘에 찔리고 기계에 어긋아진 상처투성이인 이 부드럽고 굽던 손들 서로 다정히 맞잡고 새역사 창조에로 머리를 맞대고 뜨거운 숨을 나누자. 모두는 바보이거나 여기고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 말자.

역수가 황야를 방황했음이나, 석가가 설산에서 고행을 했음이나, 공자가 천하를 첩찬 했음은 밥을 구하기 위해서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만천하 대중을 한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아루켜주며, 행복되고 평화스런 이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였던 것이다.

누구도 알고있는 안 종근, 윤봉길 선생이나 유 관순 누나 역시 명예나 사욕을 위해서 박제하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 동포는 현명하다. 이제 이성과 사랑 그리고 협조로서 삼 매임을 알고 있다. 서로 정다워야 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할 내 형제와 싸웠음을 너무 씩 뻐인 것이다. 내 자심을 위하고 내 자손을 위하고 내 거래를 위해서 나아가자, 끼여 보자, 보고 들으며 도와 보자 이빨과 방관, 부쟁과 분열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냉담히 판단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올해에는 어느 길을 가야할 것인지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의 생활인

이 되자. 또, 손해가 늘었다. 그저 보잘것 없는 시간 낭비로 삶의 먹을 드키 위서는 안될 것이다.

1981년 1월 정초

— 시 —

" 어머니께 " - 권 현 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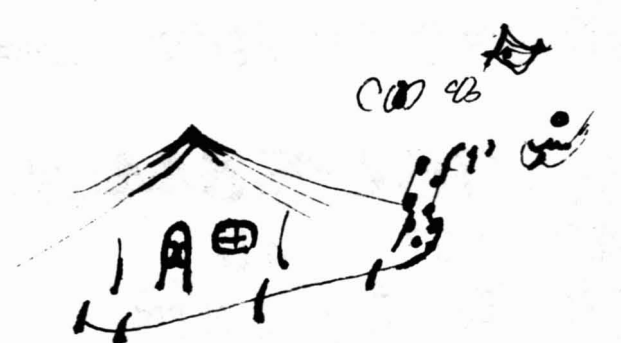
어머니, 당신의 정성어린 손길 아침해의 빛남을 보았나이다.

어머니, 당신의 우량하신 말씀 소리없이 이땅에 넘쳤나이다.

가없는 하늘과 함께 당신을 받드오니 끝없는 생명과 함께 당신을 받드오니

이몸과 마음 가진것 모두 비추어 뜨거운 가슴향을 피워 받히오이다.

어머니, 당신의 정성어리신 말씀 아침해에 빛남을 보았나이다.



— 생활정보 —

◎ " Home owner Insurance 의 기본상식 "

《 에퀴터블 종합보험 최영세 》

우리 이민생활에서 집과 재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에 비추어 현재 누구나 거의 의무적으로 들고있는 Home owner Insurance( 가옥보험 ) 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것 같기에 에퀴터블 가옥보험 안내서를 통해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재 보험이라고 통상칭하고 있는것이 화재본이라 다른 여러 보상을 함께 받을수 있는 것임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me owner policy 를 가입하는 경우 집과 개인 소유 재산 및 법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호책 태도 받게되는 것이며 이것을 크게 2부분으로 나뉘서 설명하면 1부는 property Damage( 재산피해 ) 이며 2부는 personal Liability ( 개인 책임 ) 인데 각기 policy에 정해진 한도액에 따라 보상된다.

- 1부 Property Damage Coverage ( 재산 피해 보상 ) 여기서는 가옥과 개인소유물 및 추가 생활경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
- 1) Coverage A & B - Dwelling ( 가옥 ) & other structure ( 부속건물 ) 가옥 및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206) 523-9111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최영세 에퀴터블보험



- 전미국 3대 보험회사
- 최우수 배당금 실적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건강보험,
- 상업보험

1. 장기적금과 생명보험과 퇴직금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2. 값도 싸고 혜택과 서비스가 좋은 자동차보험



집 365-0085 (시애틀)  
사무실 624-8380 (시애틀)  
582-1644 (타코마)

같은 주소지내 부속건물 (outside garages) 이 rent 나 business 가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되는 보호조항이다.

2) Coverage C - Personal property (개인 소유물)

대개 집에 있는 가구 및 옷 그리고 보험자의 소유물이 포함된다.

3) Coverage D - Loss of use

만일 어떤 손실에 의해 집에 거주할수 없는 경우 전가족이 전과다름없는 동일한 생활을 유지키 위한 경비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에 의한 피해로 집을 수리중 다른 주거장소 (motel) 등에서 거주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어떤 위협에 대한 손실이 보상되는가?

화재, 폭발, 폭풍우 와 우박, 번개, 도난, 만행, 고의적인해악, 연기, 유리파손, 눈, 진눈깨비, 배관및 난방장치의 동결, 돌발적인 배관시설, 난방, 냉동, 가전기구의 누수 및 증기의 누출에 따른 위협에 대한 손실이 보상된다. 예외로서 홍수 및 조수에 따른 손실, 하수도 및 배수관의 막힘에 의한손실, 지진, 지하수 피해, 전쟁, 핵으로 인한피해, 토문을 잠그지 않은 자동차나 보트내의 개인물품 도난은 보상되지 않는다.

5) 어떤 소유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가?

예를들면 짐승, 승용차, 또는 별도로 Policy

에 지정되거나 개별적인 보험에 들어있는 것 (고급 보석류 제외) 비행기 및 부속품 등 그리고 임대중이거나 business 용도인 물품들이 제외된다.

2부 Liability Coverages Home owner policy Liability Coverages

가입자 또는 전가족이 법적으로 남에게 책임이 있는 인체에 대한 상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즉 우리가 미국 생활에서 흔히 듣는 남으로부터의 Sue (고소)에 대한 보호책인 것이다.

1) Coverage E - Personal Liability

앞에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인체 및 재산상의 손상을 보상해준다. 예로서 보험자의아들이 야구를 하던중 동네 건너집 유리를 깨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딸이 자전거를 타던중 행인을 친 경우 보험한도액에 따른 인체상의 대한 보상도 받게된다.

2) Coverage F - medical payment

(의료비 지불) 보험자식구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의료경비를 말한다. 예로서 만일 우체부가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집주인인 당신이 그의 의료비를 보험보상비에서 지급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이 Homeowner policy 에 있는 중요해

택이며 첨부해서 알아둬야할 몇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들자면,

1) Cancellation (취소) 및 Non-renewal (재계약중지) 요소들,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보험회사에 의해 취소되거나 재계약중지 될수 있다.

1. 과거의 손실 기록
2. 가옥 유지
3. 집을 변경해 business 목적 따위의 이용이나 위험 초락 예기되는 경우

2) 보험 가입시 중요한점.

손실발생후 가옥과 재산에 대한 보험을 충분하게 가입치 못한 경우 경제적 곤경을 야기시키므로 필요한 최소 금액의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며 다음 몇가지 유의사항이 고려된다.

1. Deductable (본인 부담액)

보통 \$100 정도이나 본인 부담액을 크게 하는 경우 보험금은 싸진다. 손실발생시 총손실액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액수를 보상받는 제도이다.

2. 보험가입액수 결정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피해시 5년전 시가가 아닌 현 사고당시의 시가에 따른 감가상각없이 100% 복구비를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며 매년 상승하는 inflation 을 cover 할수 있는 보험가입액의 인상이 절대 필요하다.

3) 특별 최대 보상 한도액

회사 및 policy 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 보험료추가로 이들에 대한 coverage 를 증대시킬수도 있다.

1. \$ 100 보상한도 : 현금, 금은과, 동전, 메달 등
2. \$ 500 보상한도 : 유가증권, 신용장, 여권 tickets 우표
3. \$ 500 보상한도 : 선박 및 장비
4. \$ 500 보상한도 : 도난에 의한 귀금속 보석, 시계 등
5. 500 보상한도 : 도난에 의한 금은제류, 총포 등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현재 널리 이용되는 가옥보험으로서 하나의 보험계약을 통해 여러가지를 동시에 보호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용접 (Welding) 고질

고민 여러분 어린운 이민생활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해병동 지휘 (회장 김 두영) 에서는 좀 더 나은 고민 봉사활동을 하고저 87년도 첫사업계획에 월빙고실 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인 고포라면 누구라도 배울수 있는 월빙고실은 하루에 1시간반 일주일에 6일씩 1개월만 완성하고 저렴한 실습비만인 책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병동 지휘

# 변호사 윤영일

미국명 : EDDIE YOON

- 전 타코마시 검사 -

- 이민, 가정문제, 자동차사고, 상해  
세법, 취중운전
- 민사, 형사, 국제상사관계, 법률일반

● 사무실

SUN PLAZA BLDG. SUITE A-4  
10209 BRIDGEPORT WAY S. W.  
TACOMA, WASH. 98499

● 전화

타코마 : (206) 582-7996  
565-6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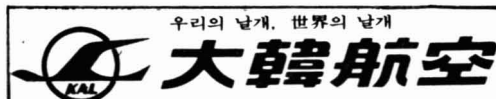
직접 개인지도를 맡았으며 최대한의 시간을 단축시켜 속성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또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교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느님의 가호가 같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해병동지회 사무실 936-3604  
3605

## 원고모집

한인회보는 약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교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의껏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일까지 한인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민의 생활 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마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인회 주소 :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767,- 7934



# 101 AUTO REPAIR

## Auto Body

COLOR MATCHING SPECIALISTS

색깔이 안맞을까 걱정을 하십니까? 오십시오.

◆ 본 바디샵은 다음 종류의 차들을 수리합니다.

● 미국내차 DOMESTIC

● 외국차 FOREIGN

▲ ALL FORD 및 CONTINENTAL

▲ ALL VOLKS WAGEN

▲ ALL CHEVROLET 및 CADILLAC

▲ ALL DATSUN 및 TOYOTA

▲ ALL CHRYSLER

▲ ALL MAZDA 및 AUDI 외 모든 외국산차

▲ ALL AMERICAN MOTORS

◆ 특별취급 ◆

모든 자동차의 유리 Windshield, Doorglass, Backwindow를 최저의 가격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 드립니다.

● FREME MACHINE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FULL PAINTING)

본 바디샵만이 특별히 지니고 있는 특수한 기술로 생산공장과 같은 전체 칠을 합니다.

★ 미국내 제일 제품인 PINK 사의 PAINT BOOTH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료견적

◆ ALL INSURANCE WORK

전화 525-5778

집 789-2655

주소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허남일 드림



# 완오완 오토바디 샵

계리사

이 주 영

전화

623-4181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725 S.W. Roxbury Street, Seattle, WA 98106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한 안 슌  
12904 S. E 45<sup>TH</sup> LANE  
BELLEVUE WA 98006